

영한 번역의 문제점: 수동태를 중심으로

조인정

(Monash University, Australia)

1. 들어가기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의 수동태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수동태의 문법 구조적인 면보다는 그 텍스트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밝히는 데 있다.

한국어에 비해서 영어에서는 수동태가 많이 쓰이며 이러한 수동태 사용상의 비대칭적 관계가 영한 번역 시 문제를 초래함은 전문번역가, 번역학자, 국어학자들(박영목 1994; 김정우 1995, 1996; 안정효 1996; 황병순 1996; 국립국어연구원 1997; 송영규 1997)에게 자주 지적받은 바가 있다. 예를 들어, 김정우(1995:77)는 “영어의 수동태를 한국어로 번역하게 되면 어딘가 국어답지 못한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였으며, 박영목(1994:283)도 “영어 번역문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피동문은 표현의 명료성과 간결성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영어 수동태의 번역에 관한 이러한 높은 관심은 자연히 영어 수동태를 어떻

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수동태 문장 번역 요령은 영어 번역 기술을 소개하는 책에서 쉽사리 찾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거로영어연구소(1998:91-95)와 서계인(2004:234-241)에서는 수동태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방법의 하나를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영어 수동태 번역 요령]

1. 능동형으로 번역한다.
2. 주어와 동작주를 바꾼다.
3. 조사 ‘은/는’을 활용한다.
4. 피해와 수익을 표현하는 경우는 그대로 수동형으로 번역한다.

위의 네 가지 방법은 영어의 수동태를 한국어로 옮기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위의 책에서는 영어의 수동태를 위의 방법을 사용해서 옮겨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영어에 비해 한국어에서는 수동문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표면적인 현상을 그 이유로 들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은 영어 수동태 문장의 번역을 이론적인 면에서 다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김정우(1996)에서는 수동태의 번역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인 수동태의 기능, 즉 수동태를 언제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 논의의 대부분을 한국어 피동형의 문법구조적 특성에 두었다. 이영옥(2000:52)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수동 구문의 의미적 구문적 특성을 각각 비교 분석하고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였지만, 수동태의 기능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영어 수동태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수동태의 텍스트 기능이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 이론을 바탕으로 밝히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영어에 비해서 한국어에서 수동태가 많이 사용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고 이것이 어떻게 번역에 적용되는지를 논의 하겠다.

2. 정보구조와 수동태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제약이 있다. 첫째, 인간의 생각이나 사고를 언어로 산출하려면 언어의 선형성 원리를 따라야 한다. 인간의 생각이나 사고는 시공간적으로 볼 때 일차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언어는 일차원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간의 사고나 생각이 언어로 산출되기 위해서는 선형성의 형태를 떨 수밖에 없다. 둘째, 의사전달은 문장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앞선 문장과 뒤에 오는 문장이 의미상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문장이 개별 문장 이상의 단위인 담화나 텍스트의 일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의사전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 문장의 의미가 앞서 나온 문맥과 연결이 되어야만 한다.

정보구조 이론은 선형성 제약 아래서 산출된 개별 문장이 담화나 텍스트 안에서 다른 문장들과 의미상으로 어우러지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띠는가를 설명해 준다. 이러한 정보구조 이론은 19세기 말의 Henri Weil의 연구에서 비롯되었으며(Firbas 1974:12),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기능중심문장접근법(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해서 현재는 정보구조, 정보포장(information packaging) 등의 여러 분과로 나뉘어서 발전해 가고 있다(Kruijff 2001; von Heusinger 2002). 그러나 비록 여러 분과로 나뉘었지만, 정보 이론은 모두 그 기본 틀에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문장의 의미는 크게 주제-서술(theme-rheme)의 두 부분으로 갈라진다.¹⁾ 둘째, 문장은 앞부분에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정보전달량(communicative dynamism)이 많아진다.

주제와 서술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주제는 일반적으로 ‘대하여성’과 ‘주어집성’과 ‘문두성’의 속성을 지닌다(채완 1990:7, 정희자 1993:192, 서정수 1996:1412-1417, 박철우 1999:76). ‘대하여성’이란 문장의 앞 부분에 주로 오는 ‘주제’에 자신이 언급하고자 하는 바를 잘 나타내주는 요소를 우선 간략하게 제시한 다음 뒤따르는 ‘서술’에서 ‘주제’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1) 학자에 따라서는 주제-서술이라는 용어 대신 화제-평언, 화제-초점, 전제-초점, 배경-초점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von Heusinger 2002:2, Kruijff 2001:158-73).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주어집성’이란 일반적으로 ‘구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주제에 나타나고 신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서술에 나타나는 속성을 말하며, ‘문두성’은 주제가 문장의 앞부분에 위치하는 속성을 가리킨다²⁾.

문장의 이러한 정보구조는 대부분의 언어에 나타나는데 본고의 연구대상인 영어와 한국어도 예외가 아니다. 영어와 한국어는 비록 문법상의 기본 어순은 다를지라도, 주제-서술의 개념에서는 같다. 예를 들어, 아래 (1)번 문장에 이어 서 글을 써나갈 때 (1)번 문장의 어떤 내용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그 다음 문장의 주제, 즉 문장의 첫머리에 오는 내용이 달라진다. (1)번 문장의 주제인 민수를 중심으로 해서 글을 이어나갈 경우에는 (2가)와 같은 문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가) 문장의 주제는 민수로서 한국어의 경우 (1)번 문장의 주제인 민수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으며, 영어의 경우에는 he라는 대명사로 (1)번 문장의 Minsoo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민수보다 책에 있을 경우에는 (2나)와 같은 문장이 사용될 것이다.

(1) 민수는 집에 책을 한 권 가져왔다.

Minsoo brought a book home.

(2가) 민수는 지금 그 책을 읽고 있다.

He is reading the book now.

(2나) 그 책은 생일선물로 수미가 주었다.

It was given as a birthday present by Soomi.

이 때 주목할 점은 (2나)의 한국어 문장은 수동태 문장이 아니지만 영어 문장은 수동태 문장이라는 점이다. 물론 영어 문장의 경우에도 수동문 대신 능동문을 사용해서 ‘Soomi gave it as a birthday present’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능동문보다는 수동문을 써야 (1)번 문장과 연결이 더 매끄럽다. 이처럼 앞이나 뒷문장과 연결을 위해서 수동태를 사용하는 것은 수동태의 중요한 기능인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논의하고, 여기에서는 왜 한국어와 영

2) ‘주제’와 ‘서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조인정(2004)를 참조하기 바란다.

어 문장이 수동태 사용 빈도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겠다.

첫째, 한국어는 영어에 비해서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다. 한국어는 “서술어를 제외한 문의 기본 성분들이 상호 간에 자리바꿈이 가능하고..... 부사 또는 부사어의 자리바꿈이 매우 자유롭다”(성기철 1992). 영어도 부사 또는 부사어의 경우에는 문장의 머리에 비교적 자유롭게 위치할 수가 있다. 그러나 영어는 서술어를 제외한 문의 기본 성분들 사이의 자리바꿈이 한국어와는 달리 자유롭지가 않다. 따라서 영어는 (2나)의 한국어 문장과 같은 표현은 문법 구조상 가능하지 않으므로 수동태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한국어 문장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로운 어순과 수동태 사용의 밀접한 관계는 영어에 가까운 언어인 독일어에서도 나타난다. 즉 영어에 비해서 어순이 자유로운 독일어에서도 수동문이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김진도 1996:12).

둘째, 한국어는 Li & Thompson(1976:461-466)이 지적한 것처럼 문장의 머리에 오는 요소가 문법규칙에 비교적 얽매이지 않는 편이다. 이는 한국어가 주어-주제 중심 언어로 주제격 조사인 ‘-은/-는’을 사용하면 서술어의 논항에 해당하지 않는 문장 성분을 문장 머리에 주제로 내세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의 문장에서 주어는 주격 조사가 붙은 ‘코가’이며, 서술어는 ‘길다’이다. 다시 말해서, 주제인 ‘코끼리는’은 서술어 ‘길다’의 논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될 수가 있다.

(3) 코끼리는 코가 길다.

그러나 (3)에 해당하는 영어 문장에서는 ‘코끼리는’ 이란 부분이 주어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이는 영어는 주어 중심 언어이기 때문이다. 즉 영어는 한국어의 주제처럼 서술어에 제약되지 않는 성분이 문장 첫머리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없다.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장 첫머리에 오는 성분이 서술어의 주어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2나)처럼 특정 성분을 문장 앞에 내세우기 위해서는 특정한 문법구조가 필요하며, 이런 구조 중의 하나가 수동태이다 (Li & Tohmpson 1976:463).

셋째,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는 (4)번 보기에 나타나 있듯이 “흔히 의미 전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면 거의 어떤 성분도 탈락시킬 수”가 있다(서정수

1996:1364).

- (4) ㄱ: (너 한국어 공부) 다 했니?
ㄴ: (나 한국어 공부) 다 했어.

이러한 한국어의 특성은 영어 수동태의 주된 기능인 ‘행위자 드러내지 않기’와 비교된다. 예를 들어, (5가)의 영어 수동문을 한국어로 옮기면 (5나)와 같이 되는데, (5나)에서는 영어처럼 수동태를 사용하는 대신 행위자를 내보이지 않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에서는 굳이 수동태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정 문장의 행위자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다.

- (5가) English is spoken in Australia.
(5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영어를 사용한다.

이상으로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적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영어에 비해서 한국어에서 수동태가 많이 사용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에 대한 지식은 영어 수동문 번역 시 왜 형태보다는 기능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3. 영어 수동태의 기능과 그 번역

Biber 외(1999:935-943)는 4천만 개에 달하는 영어 단어로 이루어진 말뭉치를 대화, 문학 작품, 신문, 학술 논문 분야로 나누어서 영어가 실제로 어떤 양상으로 사용되는지를 광범위하게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영어 수동태의 텍스트 기능은 정보 제시 순서의 조작과 정보의 생략을 통해서 해당 문장이 문맥과 어우러지게 하는 데에 있으며, 수동태 문장의 주어에는 일반적으로 문맥 등을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고 한다. 그리고 수동문의 사용 빈도는 대화, 문학 작품, 신문, 학술 논문의 순으로 높아지며, 특히 신문과 학술 논문은 대화와 문학 작품에 비해서 수동태가 훨씬 많이 사용된다고 한다.

수동태의 이러한 쓰임새는 수동태가 입말보다는 글말의 특성이며, 앞에서 논의한 정보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3.1 영어 장형 수동문

수동문의 쓰임새를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동문을 ‘by + 행위자’가 나타나는 장형 수동문과 ‘by + 행위자’가 나타나지 않는 단형 수동문으로 크게 나눌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장형 수동문과 단형 수동문의 사용 조건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Biber 외 1999:943).

장형 수동문의 경우 약 90%가 구정보-신정보의 유형을 따른다(Biber 외 1999:941). 즉 장형 수동문의 주어는 문맥이나 앞 문장에서 언급된 사항이며, ‘by + 행위자’는 앞에서 언급된 바가 없는 새로운 정보를 전한다. 따라서 장형 수동문을 번역할 때는 이러한 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글의 흐름이 깨질 수가 있다.

다음의 토막글은 현상학에 관한 학술서와 그 번역서에서 뽑은 것으로서 플라톤의 제7 서신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논의에 중요한 부분들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6가) Plato addresses his letter to the companions and friends of Dion. The letter is occasioned by Plato's attempt to maintain his neutrality in the struggle for power at Syracuse between the exiled Dion and the ruling Dionysius I.

(6나) 플라톤은 디온(Dion)의 친구 및 동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추방 당한 디온과 통치자 디오니시우스(Dionysius) 1세 사이에 시라큐스 시를 놓고 벌어진 권력투쟁에서 플라톤 자신이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

원문인 (6가)와 기존의 번역문인 (6나)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수동문인 두 번째 문장이다. 원문의 경우 두 번째 문장의 주어인 ‘The letter’가 첫 번째 문장의 서술인 ‘addresses his letter to the companions and friends of Dion’에 나와

있는 'his letter'를 이어받고 있다. 정보구조 이론에서 보면 첫 번째 문장의 서술이 두 번째 문장의 주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번역문에는 이러한 글의 흐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원문의 두 번째 문장에서 주제 역할을 하는 'The letter'가 번역문의 두 번째 문장에서는 서술의 뒷부분에 나와 있다. 그 결과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논리적으로 유연하게 이어지지 않고 있다. 원문에 나타난 논리적 유연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번역문장을 아래의 (6다)의 두 번째 문장처럼 고쳐야 한다).

(6다) 플라톤은 디온(Dion)의 친구 및 동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추방 당한 디온과 통치자 디오니시우스⁴⁾(Dionysius) 1세 사이에 시라큐스⁵⁾ 시를 놓고 벌어진 권력투쟁에서 플라톤 자신이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장형 수동문의 또 다른 예로써 CNN 국제판 웹 사이트에 실린 기사인 'Israel targets Hamas in Gaza City strike'에서 뽑은 다음 문장을 분석해 보자.

(7가) Hamas is a Palestinian Islamic fundamentalist organization and has been labeled by the U.S. State Department as a terrorist organization. (출처: CNN 국제판 웹 사이트, 2004년 8월 18일자 기사)

(7나)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이슬람근본주의단체로서, 미 국방부는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한글 CNN 웹 사이트, 2004년 8월 18일자 기사)

우선 영어 원문을 분석해 보면, 두 개의 절이 등위접속사 'and'로 묶여서 하나

- 3) 수정 번역문을 제시할 때 되도록이면 기존 번역문을 최대한으로 살렸다. 이는 본고의 목적이 영어 수동태 문장의 번역 시 형태가 아니라 수동태의 텍스트 기능을 중심으로 해야 함을 보여주는 데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수동태와 관련되지 않은 변수를 되도록 제거하기 위해서 기존의 번역문을 필요 이상으로 다듬지 않았다. 단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 부분은 각주로 처리하였다.
- 4) '디오니시우스'가 아니라 '디오니시오스'가 되어야 한다.
- 5) '시라큐스'가 아니라 '시러큐스'이다. 그러나 Syracuse의 원 이탈리아 이름은 Siracusa 이므로 '시라쿠사'로 번역해야 한다.

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주제는 문장의 제일 앞에 있는 Hamas로 첫 번째 절과 두 번째 절은 주제인 Hamas에 관한 설명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장형 수동 구문이 사용된 두 번째 절이다. 즉 두 번째 절에서는 첫 번째 절에서 사용된 문장의 주제인 Hamas를 계속해서 주제로 유지하기 위해서 장형 수동 구문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번역문에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 즉 번역문은 장형 수동 구문을 한국어의 능동구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문과는 달리 두 개의 주제를 내세우고 말았다. 즉 ‘하마스는....., 미 국방부는.....’으로 번역을 한 결과 첫 번째 절의 주제는 원문과 동일하게 ‘하마스’가 되었지만, 두 번째 절의 주제는 원문과는 달리 ‘미 국방부’가 되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원문에서는 문장 전체에 걸쳐서 주제가 하나로 일정하게 나와 있으나, 번역문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원문을 살리려면, 아래의 (7다)처럼 ‘미 국방부’에 사용된 주제격 조사 ‘는’을 주격 조사 ‘가’로 바꾸고 목적어인 ‘하마스’를 없애야 한다.

(7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이슬람근본주의단체로서, 미 국방부가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으로 장형 수동 구문을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를 논의하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번역문 모두에서 수동문이 사용되지 않고 능동문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앞에서 예로 든 기존 번역문들도 ‘by + 행위자’를 ‘행위자 + 에 의해서’라는 어색한 표현을 사용해서 수동 구문으로 처리하지 않고, 능동문으로 처리하려고 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장형 수동문을 단순히 능동문으로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올바른 번역을 위해서는 영어 장형 수동문이 해당 텍스트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파악한 다음 이를 한국어의 특성에 맞게 옮겨야만 한다.

6) 기존 번역문에서 ‘국방부’로 번역된 ‘The U.S. State Department’는 ‘국무부’로 번역되어야 한다.

3.2 영어 단형 수동문

단형 수동문에는 장형 수동문과 달리 ‘by + 행위자’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Biber 외 1999:938).

[단형 수동문의 사용 이유]

- 가. 동작주가 알려져 있지 않다.
- 나. 이미 문맥 등을 통해서 동작주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동작주를 중복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다.
- 다. 동작주의 정보 가치가 낮아서 동작주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위와 같은 전반적인 이유 이외에도 단형 수동문은 글의 객관성이나 초점과 관련해서도 사용된다. 단형 수동문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학술 논문의 경우, 단형 수동문의 사용 목적은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를 일반화하기 위해서이다(Biber 외 1999:938). 즉 학술 논문에서는 누가 행위를 수행했는가를 내보이기보다는 행위나 행위의 결과를 일반화하려 한다. 따라서 단형 수동문을 많이 사용하며, 행위자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일반인을 나타내는 불특정 대명사인 ‘we’나 ‘one’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8가) Econometrics may be defined as the social science in which the tools of economic theory, mathematics, and statistical inference are applied to the analysis of economic phenomena.

(8나) 계량경제학은 경제이론, 수학, 그리고 통계적 추론 등의 분석도구를 실제현상을 분석하는데 응용하는 사회과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위의 토막글은 계량경제학 책과 그 번역서에서 뽑아 온 것으로서 계량경제학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위의 정의는 이 책을 쓴 저자가 내린 것으로서 한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다. 이러한 점은 위의 문장을 능동문인 ‘I may

7) 한국어에서는 여러 항목을 열거 시에 마지막 항목 앞에 ‘그리고’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이론, 수학, 통계적 추론’이 현행 문장 부호 규칙에 맞는다.

define econometrics...'로 고치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위 책의 저자는 주관성이 강하게 풍기는 능동문 대신에 수동문을 이용해서 자신이 내린 정의에 객관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8나)의 번역문을 보면, 수동문이 사용되지 않고 능동문이 사용되었다. 이는 한국어에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의미 전달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거의 어떤 성분도 탈락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정의'를 내리는 행위자인 '나'를 탈락시켜서 원문의 수동태가 수행하는 텍스트 기능인 객관성을 어느 정도 성취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수동태를 사용하지 않았다.

학술 논문 다음으로 단형 수동문이 많이 사용되는 신문의 경우는 일반성보다는 특정 사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단형 수동문을 사용한다. 즉 특정 사건의 행위자가 비록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인이지만, 행위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거나 문맥 등을 통해서 이미 알려져서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 단형 수동문을 사용한다(Biber 외 1999:939). 이러한 예로 CNN 국제판 웹사이트에 실린 기사인 'Iraq to get Saddam Legal Custody'에서 뽑은 다음의 토막글을 들 수 있다.

(9가) "Saddam Hussein, along with up to 11 other high-value detainees, will be transferred to legal custody of Iraq tomorrow and will be charged by an Iraq investigative judge on the following day," Allawi said. (출처: CNN 국제판 웹 사이트, 2004년 6월 29일자 기사)

(9나) "사담 후세인과 최대 11명에 달하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법적 관할권이 내일이면 이라크로 넘어올 것이며, 그 다음날 이라크 사법당국이 후세인의 혐의를 결정할 것이다." (출처: 한글CNN 웹 사이트, 2004년 6월 30일자 기사)

윗 글에서는 사담 후세인을 이라크 정부에 인도하는 행위자가 미군이라는 사실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관심의 초점이 사담 후세인에 있으므로, 문장의 첫 번째 절에서 Saddam Hussein을 주어로 내세워서 단형 수동문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절(will be charged...)에서는 첫 번째 절의 주어인 Saddam Hussein을 살려서 글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장형 수동문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영어 원문과는 달리 (9나)의 번역문에서 수동태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영어 수동문의 번역이 문법구조인 수동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동문이 수행하는 텍스트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다음의 토막글도 CNN 국제판 웹 사이트에 실린 기사인 ‘Critics Attack U.S. Troop Move’에서 뽑은 것이다.

(10가) U.S. President George W. Bush said Monday between 60,000 to 70,000 uniformed personnel would be moved from overseas to posts in the U.S. over the next decade to create a “more agile and more flexible force.” (출처: CNN 국제판 웹 사이트, 2004년 8월 17일자 기사)

(10나) 부시 대통령은 월요일(이하 현지시간) 향후 10년에 걸쳐 해외 주둔 미군 6만-7만 명을 본국으로 송환해 ‘보다 기동성 있고, 유연성 있는 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처: 한글 CNN 웹 사이트, 2004년 8월 18일자 기사)

위의 영어 기사에서는 해외 주둔 미군을 재배치하는 행위자가 부시 대통령이 라는 사실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다가 주절의 주어에 이미 인용절의 행위자인 ‘U.S. President George W. Bush’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인용절의 주어를 ‘between 60,000 to 70,000 uniformed personnel’로 내세워서 행위자가 생략된 단형 수동태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번역글의 인용절에서는 수동 구문이 아니라 한국어의 특성인 알려진 성분 생략 기능을 사용해서 인용절을 주어 없이 능동문으로 처리하였다⁸⁾.

이번에는 영어 수동문이 번역문에서도 수동문으로 처리된 신문 기사를 하나 분석해 보겠다. 아래의 글은 CNN 국제판 웹 사이트에 실린 기사인 ‘Kidnappers Free Journalist in Iraq’에서 뽑은 것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각 문장 앞에

8) 그러나 번역문에 사용된 ‘송환’이라는 용어는 문맥에 적절하지 않다. 『연세 한국어 사전』에 따르면 ‘송환’이란 단어의 의미는 “전쟁 포로나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을 돌려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송환’보다는 ‘재배치’가 해당 문맥에 맞는 표현이다.

일련번호를 붙였다.

(11가) NAJAF, Iraq (CNN) -- ¹French-American journalist Micah Garen was released in Nasiriya and was in U.S. hands late Sunday after being kidnapped by insurgents in the southern Iraq city more than a week ago.

²Garen, 36, was kidnapped August 13 along with his Iraqi translator, Amir Doshe, in a busy Nasiriya market. ³Doshe also was released, according to the New York-based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⁴In an interview Sunday on the Arabic-language television network Al-Jazeera, Garen said he had been treated well during his captivity. (출처: CNN 국제판 웹 사이트, 2004년 8월 23일자 기사)

(11나) ¹일주일 넘게 억류돼 있던 프랑스로 미국 언론인, 미카 가렌이 일요일 (이하 현지시간) 이라크 나시리아에서 석방됐다.

²가렌(36)은 지난 8월 13일 이라크인 통역사 아미르 도쉬와 함께 나시리아의 혼잡한 시장을 거닐던 중 납치됐다. ³뉴욕에 본부를 둔 언론인보호위원회(CPJ)에 따르면, 통역사 도쉬 역시 일요일 석방됐다.

⁴가렌은 일요일 알-자지라 아랍어 TV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잡혀 있는 동안 인질범들이 잘 대우해줬다"고 말했다. (출처: 한글 CNN 웹 사이트, 2004년 8월 24일자 기사)

이 영어 기사의 초점은 미국 언론인인 Micah Garen에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Micah Garen은 자신이 어떤 특정 행위를 한 행위자가 아니라 ‘납치’라는 행위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Micah Garen을 주어로 쓸 경우 능동태보다는 수동태가 훨씬 적합하다. 그래서 위의 토막글에는 모든 문장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

9) 기존 번역문은 따옴표 안에 들어간 인용문에 마침표를 쓰지 않았다. 이는 현행 문장 부호 규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출판계에서는 인용문에 마침표를 쓰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국어학자들 중에서도 현행 문장 부호의 규칙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이익섭2002:12-15).

이러한 배경 지식을 토대로 각 문장을 하나씩 분석해 보자.

첫 번째 문장의 번역은 원문의 내용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약간 축약해서 번역했으나 이 점은 현 논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수동태 부분만을 논하기로 하겠다. 이 문장에는 수동태가 두 번 사용된 즉, ‘Micah Garen was released’와 ‘after being kidnapped by insurgents’가 그것으로 한국어 번역도 수동태로 되어 있다. 한국어에서는 영어에 비해서 수동태가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피해나 수익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수동태가 사용된다. 위 문장에 사용된 수동태의 경우에는 피해와 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 시 수동태로 처리한 점은 적절하다. 그러나 ‘석방됐다’라는 표현에는 문제가 있다. 1991년도 금성관 『국어대사전』을 보면, ‘석방’의 의미는 “법에 의해 구속된 사람을 풀어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용어의 사용은 반란군(insurgents)의 납치 행위를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석방됐다’가 아니라 ‘풀려났다’로 번역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문장도 피해를 입은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수동태로 번역되었고, 세 번째 문장은 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시 수동태로 번역되었으나, 첫 번째 문장과 마찬가지로 ‘석방됐다’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의 경우 원문에서는 Doshe가 문장 앞에 놓여서 그 문장의 주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번역문에서는 문장의 중간에 파묻혀 버린 결과 글의 흐름이 원문만큼 유연하지 않다. 원문의 경우 두 번째 문장의 서술에 나와 있는 아미르 도쉬를 세 번째 문장에서 주제로 이어받아서 처리하고 있으나 번역문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아서 ‘도쉬 역시 석방됐다’라는 주요 내용이 문장의 뒤로 밀려나 버렸다.¹⁰⁾ 원문의 정보구조에 따라서 번역을 하면, ‘통역사 도쉬 역시 일요일 풀려났다고 뉴욕에 본부를 둔 언론인보호위원회(CPJ)가 밝혔다.’가 된다.

네 번째 문장은 원문은 수동태이지만, 번역 기사에서는 영어 문장에는 없는 행위자를 넣어서 능동문으로 처리하였다. 능동문으로 번역해도 한국어에서는 ‘가렌’이 문장 전체에 걸쳐서 주제임이 확실하므로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잡혀 있는 동안 인질범들이 잘 대우해줬다’는 표현을 ‘잡혀 있는 동안 처우가

10) ‘-에 따르면’이라는 구문은 인용 구문이기 때문에 본 동사 뒤에 ‘고 한다’가 붙어야 한다. 즉 ‘뉴욕에 본부를 둔 언론인보호위원회(CPJ)에 따르면, 통역사 도쉬 역시 일요일 석방됐다고 한다’라고 해야 문법에 맞는다.

괜찮았었다'로 하면, 능동문으로 번역하더라도 행위자를 나타내지 않을 수가 있다. 거기다가 '잡혀 있는 동안 인질범들이 잘 대우해줬다'는 표현은 인질범이 '정말' 잘 해 주었다는 느낌을 준다. 이것은 '석방'이라는 표현과 함께 인질범들의 행위를 더욱 더 긍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위의 기사의 경우에는 네 번째 문장을 기존 번역문처럼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원문에 행위자가 나타나 있지 않은 단형 수동문을 행위자가 나타나도록 번역하면 안 되는 때가 있다. 이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3.3 영어 단형 수동문의 특수 기능: 책임 회피

단형 수동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을 피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데(Roberts 1954:131, Börjars & Burridge 2001:294, Brusaw, Alred & Oliu 1987:706) 이런 경우에는 원문에 나오지 않는 행위자를 번역문에 나타내서는 안 된다.

영어 단형 수동문의 책임 회피 기능은 다음의 예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 회사 사장이 직원들에게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주말에 일을 해야 한다는 소식은 아마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일 것이다. 따라서 사장은 그러한 반갑지 않은 결정을 자신이 내렸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능동문인 (12가)보다는 그러한 결정의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는 수동문인 (12나)를 선택하게 된다.

(12가) I have decided everybody must work this weekend.

(12나) It has been determined that everybody must work this weekend.

단형 수동문은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추구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실수를 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13가)처럼 실수한 사람을 행위자로 나타내면, 그 사람을 질책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다. 따라서 이렇게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행위자가 나타나지 않는 단형 수동문을 사

용할 수가 있다.

(13가) Mark made mistakes.

(13나) Mistakes were made.

이처럼 단형 수동문이 책임 회피 기능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번역 시에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은 행위자를 보충해 넣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능의 수동 구문은 정치가나 외교관들이 자주 사용하는데, 그 예로 2001년도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한국전쟁의 노근리 사건과 관련하여 발표한 성명서를 들 수가 있다. 다음은 그 성명서의 일부로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 필자가 밑줄을 넣었다.

(14가) Although we have been unable to determine precisely the events that occurred at No Gun Ri, the U.S.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concluded innocent Korean refugees were killed or injured there. To those Koreans who lost loved ones at No Gun Ri, I offer my condolences. (출처: CNN 웹 사이트, 2001년 1월 12일자 기사)

(14나) 비록 노근리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과를 정확히 가려낼 수 없었으나 한국과 미국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인원을 확인할 수 없는 무고한 한국인 피난민이 그곳에서 죽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인은 노근리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한국인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출처: 인터넷한겨레, 2001년1월 12일)

클린턴의 노근리사건 성명서는 노근리에서 미군이 한국인 피난민을 살상한 점을 인정한 2001년 1월의 한미공동발표문 다음에 나온 것으로써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미군이 피난민을 살상했다는 점은 미국 정부도 이미 인정한 바이지만, 위의 성명서에서 클린턴은 되도록이면 살상 행위자인 미군이 드러나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능동문(U.S. troops killed or injured innocent Korean refugees) 대신 단형 수동문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수동 구문을 번역할 경우에는 행위자가 알려져 있다고 해서 행위자를 넣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위의 번역문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행위자가 나타나지 않는 능동문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비록 행위자가 곁에 나타나지 않는 능동문으로 번역은 되었지만, 'were killed or injured'를 '죽었다'라고 자동사로 처리한 데는 문제가 있다. 이는 원문이 주는 '피해'의 느낌, 즉 무고한 피난민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일을 당했다는 느낌이 번역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어에서 비록 수동태가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피해나 수익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수동태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어 수동 구문은 '무고한 한국인 피난민이 그곳에서 피살 또는 부상당했다'라고 번역이 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영어 단형 수동 구문의 번역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 본 논의에서 뚜렷하게 드러난 사항은 영어 단형 수동 구문이 한국어에서는 피해나 수익을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능동형으로 번역된다는 점이다.

4. 마무리

본고에서는 정보구조 이론을 중심으로 영어 수동태의 기능과 관련해서 한국어와 영어가 어떻게 문법 구조적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보인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영어 수동 구문을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 수동태의 문법 구조가 아니라 수동태가 해당 텍스트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임을 밝혔다. 즉 영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해서 한국어에서도 그대로 수동태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안에서 수동태가 쓰인 의도를 파악한 뒤 그 의도에 맞게 해당 구문을 한국어로 번역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밝혀두어야 할 사항은 본고에서 수동 구문의 모든 기능을 다루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영어 수동 구문의 번역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 그 기능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본고의 논의는 번역 교육뿐만 아니라 영어와 국어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국의 중·고등학교에서의 영어 수동 구문의 지도는 능동구문을 수동 구문으로, 또는 수동 구문을 능동구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는 데 중

점을 두”고 있다(김성중 2000:2). 그 결과 학생들은 영어 능동구문과 수동 구문을 각각 그 기능에 맞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도 못하거니와, 학생들에게 수동 구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역지 한국어 번역은 학생들의 모국어 사용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어로 글을 쓸 때도 영어 수동태를 직역한 번역투의 어색한 한국어가 남발하는 사태에 이르렀다(황병순 1996:211, 이수열 1999:129, 민현식 1999:302). 이러한 지적은 영어와 한국어의 수동태 교육 시 수동태의 기능과 그에 관련된 영어와 한국어의 문법 구조상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영어가 현재 세계어로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많은 언어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러한 영향 중의 하나가 수동태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어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역사가 상당히 짧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다른 언어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근본적인 특성까지 무너뜨리는 요소를 아무 의식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거로영어연구소. 1998. 『영문번역요령』. 서울: 거로출판사.
- 국립국어연구원. 1997. 『한국 신문의 문체: 1990년대』.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김성중. 2000. 「영어 수동구문 용법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4, 63-95.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우. 1995. 「번역과 국어학」, 『인문논총』 7:1, 71-87.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정우. 1996. 『영어를 우리말처럼 우리말을 영어처럼: 이론편』. 서울: 창문사.
- 김진도. 1996. 「텍스트 구성에 있어서 어순의 기능」, 『중원인문논총』 15, 197-225. 건국대학교 중원인문연구소.
- 민현식. 1999. 『국어 문법 연구』. 서울: 역락.
- 박영목. 1994. 「영문 번역 문체의 생성 요인과 그 양상」, 박갑수 편. 『국어문체론』.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박철우. 1999. 「한국어의 화제: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언어연구』 19, 75-97, 서울대학교 언어연구회.
- 서계인. 2004. 『실전 영어번역의 기술』. 서울: 북라인.
- 서정수. 1996. 수정증보판 『국어문법』.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 성기철. 1992. 「국어 어순 연구」, 『한글』 218, 101-138, 한글학회.
- 송영규. 1997. 「번역에 관한 일고: 그 중요성과 문제점」, 『외국학연구』 1, 265-288. 중앙대학교 외국어문학연구소.
- 안정효. 1996. 『번역의 테크닉』. 서울: 효남사.
- 이수열. 1999.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말 바로 쓰기』. 서울: 현암사.
- 이영옥. 2000. 「한국어와 영어간 구조의 차이에 따른 번역의 문제 - 수동구문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 47-76. 한국번역학회.
- 이익섭. 2002. 「문장 부호의 중요성과 우리의 현실」, 『새국어생활』 12:4, 5-20. 국립국어연구원.
- 정희자. 1993. 「주제에 관하여(담화의 기능 개념으로서)」, 『외대어문논집』 9:1, 191-227, 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연구소.
- 조인정. 2004. 「영한 번역의 문제: 주제 전개」, 『이중언어학』 26, 331-356. 이중언어학회.
- 채완. 1990. 「국어 어순의 기능적 고찰」, 『동대논총』 20:1, 103-119, 동덕여자대학교.
- 황병순. 1996. 『말을 알면 문화가 보인다』. 서울: 태학사.
- Biber, Douglas, Stig Johansson, Geoffrey Leech, Susan Conrad and Edward Finegan.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Edinburgh Gate: Pearson Education Limited.
- Börjars, Kertis and Kate Burridge. 2001. *Introducing English Grammar*. London: Arnold.
- Brusaw, Charles, T., Gerald J. Alred and Walter E. Oliu. 1987. *Handbook of Technical Writing*. 3rd ed. New York: St. Martin's Press.
- Firbas, Jan. 1974. "Some Aspects of the Czechoslovak Approach to Problems of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In Daněš, F. (ed.) *Papers on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pp.11-37). Hague: Mouton.

- Kruijff, Geert-Jan M. 2001. *A Categorical-Modal Logical Architecture of Informativit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Charles University, Czech Republic. [Available at <http://www.coli.uni-sb.de/~gj/dissertation.phtml>].
- Li, Charles N. and Sandra A. Thompson. 1976.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of Language". In Li, Charles N. (ed.) *Subject and Topic*, (pp. 457-489) London: Academic Press.
- Roberts, Paul. 1954. *Understanding Grammar*. London: Harper & Row.
- von Heusinger, Klaus. 2002. "Information Structure and the Partition of Sentence Meaning". In Hajičová E., J. Hana, T. Hoskovec and P. Sgall, (eds.). *Travaux du Cercle Linguistique de Prague n.s. / Prague Linguistic Circle Papers 4*, (pp.275-305.) Amsterdam; Philadelphia: Benjamins. [Available at: <http://www.ilg.uni-stuttgart.de/vonHeusinger/publications/ftp/habil/Into&Infor3.pdf>].

K C I

[Abstract]

English-Korean Translation: Passive Constructions

Cho, InJung
(Monash University)

This study shows that English passive constructions should be translated into Korean based on the functions that they perform in a given text. In English to Korean translation, the English passive has long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difficult elements and has received great attention from translators and researchers. However, this attention has mainly focused on the forms of the passive rather than its textual functions, as well as on ad hoc solutions without systematic analysis.

Working with information structure theory and text linguistics, the present study first shows that the functions of the English passive can be expressed in forms other than the passive in Korean. Then, it presents how this knowledge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nguages can be applied to transl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several existing examples.

From the analysis, it is concluded that the textual functions of the English passive should be the first and foremost consideration when translating them into Korean. It is also a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long passive, which contains the agent expressed in a by-phrase, from the short passive without a 'by + agent' phrase since they perform very different textual function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not just limited to translation. They also have implications for the general English and Korean education.

▶Key Words: English-Korean translation, passive constructions, textual functions of the passive, information structure theory, theme-rheme, textual function.

조인정(Cho, InJung)

Monash University, Australia

조교수

언어교육학

전화: 호주 내: (03) 9905 3626 / 호주 밖: IDD+ 61 3 9905 3626

전자우편: InJung.Cho@arts.monash.edu.au

논문투고일 : 2005년 4월 20일

심사완료일 : 2005년 5월 20일

게재확정일 : 2005년 6월 10일

K C I